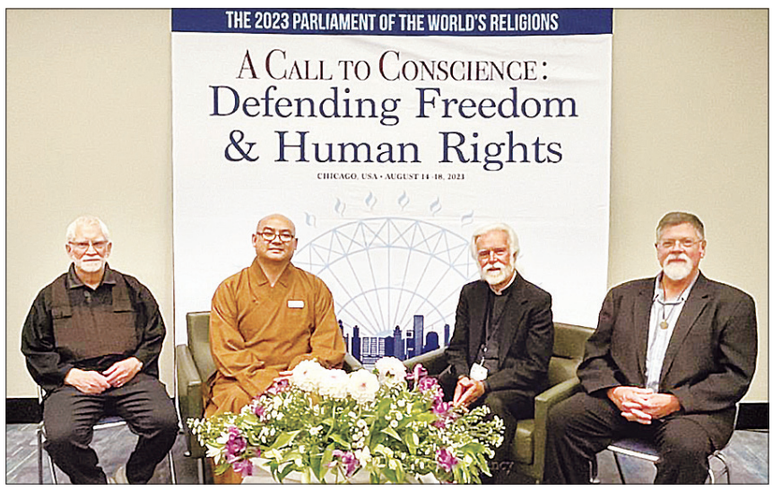
불교·그리스도교, 기후 위기 극복 나섰다

8월 14~16일, 세계종교의회
스님·성직자·연구자 등 모여
현대 종교 역할 대한 토론회
기후 문제 자각 명상 시간도

박영빈 객원기자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대화에 나선 불교와 그리스도교. 사진출처=다라이프 뉴스 애이전시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2023년 세계종교의회에서 불교와 그리스도교를 대표하는 종교지도자들과 학자들이 함께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종교인들의 행동에 대한 대화 시간을 가졌다. 8월 20일, 대만의 '라이프 뉴스 에이전시'는 두 종교 간의 의미 있는 토론회에 대해 보도했다.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시카고 맥코믹 플레이스에서 개최된 2023년 세계종교의회. 전 세계에서 다양한 종교의 대표 수천 명이 참석하여 진행된 이번 의회에서는 각 종교간의 대화와 세계평화를 위한 현대 종교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 가운데 16일 오후, 불교와 그리스도교 간에 기후변화와 위기에 대한 토론 세션인 '대화할 시간'이 개최됐다. 불광산사 미국지원인 서래사의 후이저 스님과 유대·그리스도·이슬람학 연구소의 소장 알렉세이 스미스 신부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전 세계에서 모인 60명 이상의 스님, 성직자, 연구자, 작가, 과학자 등이 모여 각자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했다.

먼저 좌장을 맡은 알렉세이 신부는 천주교를 대표하여 지금까지 기후변화의 위기와 관련하여 불교와 그리스도교가 장기적으로 함께해온 활동에 대해 보고했다. 이후 불경과 성서에 나오는 구절을 암송하고 이와 관련하여 환경과 기후 문제에 관해 명상하는 시간을 총 4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진행을 맡은 후이저 스님은 모든 참가자들에게 각기 들었던 경구들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문장들을 나누고 서로 토론하기를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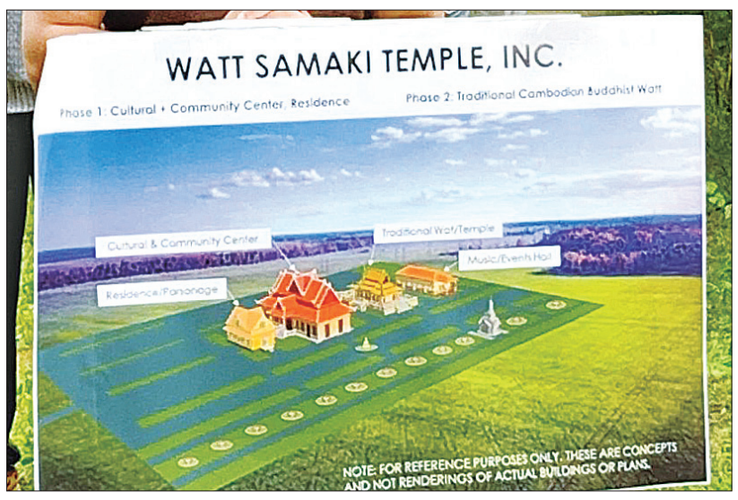
가장 먼저 후이저 스님은 "나는 불교 경전에서 말하는 '일체중생'을 꼽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 스님은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은 인간의 생존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천 수만 생물의 지속 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함을 의미한다"며 모두 연기적으로 연결돼 있음을 강조했다.

한 과학 연구원은 "불경에서 말한 '자비와 방편'이라는 말이 인상 깊었다"면서 "나는 그동안 종교인들이 사후에 어떠한 보상을 찾는 것에만 집중한다고 생각했으나 자비와 방편이라는 실천을 통해 종교인들이 이 세상의 문제와 환경을 개선하려 한다는 점을 깊이 알게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천주교 작가는 "이곳에서 열리는 많은 포럼과 강의가 동일한 장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변소음으로 인해 경구를 듣는 데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환경에서 다양한 매체로부터 솔직한 의견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경구가 아닌 그 순간의 자리에서 느낀 바를 나눴다. 그는 "다양한 환경보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념적 노이즈를 극복하고 지구환경의 보호와 인류문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해 많은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英, 캄보디아 사원 불자 주도로 중창 불사

사찰 이전 및 포교원 건립 목적
"인종 상관없이 명상 공간 제공"



왓 사마키 사원 조감도. 사진출처=왓 사마키 사원

영국 벅스턴에 있는 캄보디아 불교사원 왓 사마키 사원의 불자들이 사원 이전 및 포교원 건립을 목표로 중창 불사에 나섰다. 지난 8월 16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영국 벅스턴에 위치한 캄보디아 불교 사원 '왓 사마키'의 중창 불사 소식을 전했다.

왓 사마키 사원은 최근 사찰 이전을 목적으로 웨스트브룩 지역에 12헥타르(약 3만 6300평)의 토지를 매입했다. 해당 부지에는 법당, 요사채, 포교원, 이벤트홀 등을 건립할 예정이며 중창 불사 목표액은 150만 달러(한화 약 20억)이다. 중창 불사는 두 단계로 진행되며 1~3년에 걸쳐 100만 달러(한화 약 13억)를 투자해 포교원과 요사채 건립, 3~5년은 50만 달러(한화 약 7억)를 투자해 캄보디아 전통 양식의 법당을 건립할 예정이다. 건설업에 종사 중인 캄보디아 불자들은 중창 운력에 동참하고 있다.

왓 사마키 사원의 불자이자 중창 불사를 주도하는 크메르 메인의 설립자인 '마르핀 챈'은 "우리 캄보디아 불자회는 크메르 루주의 무차별적인 살육과 박해를 피해 영국으로 망명해 지난 반세기 동안 사원을 '집'이라고 불렀다"면서 "코로나 펜데믹 동안 캄보디아 불자회에 새 신도가 늘어 새롭고 더 큰 공간이 필요해 수 년에 걸친 논의 끝에 중창 불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기존 사원은 최대 300명만 수용할 수 있어 법요식 및 캄보디아 전통 명절 행사를 진행하기 매우 어려웠다. 마르핀 챈 설립자는 "새로운 장소에서 부처님의 법음을 널리 전파하고 불교의 대중화와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웨스트브룩으로 건립 지역을 선택한 것에 대해 "캄보디아 인구가 많으며 시에서 캄보디아 공동체 및 사원 건립에 긍정적이었다. 사원과 도시 사이의 연결이 용이하며 도시에서 기꺼이 도움을 제공하기 때문에 최적의 조건이었다"며 이번 지역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사원 및 포교원은 캄보디아 공동체의 문화센터 역할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전통 춤, 음악, 예술을 가르치고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더 넓은 지역사회에서 문화 교류와 포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원 건립 부지에 있는 산책로를 유지해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챈은 "왓 사마키 사원은 캄보디아의 정신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질 것이며 앞으로 우리의 문화와 종교를 통해 다문화 시대에 맞춰 지역 주민과 융합될 수 있는 공간으로 나아갈 것"이라면서 "기존 산책로를 유지하여 지역 주민의 편의 및 숲 명상, 숲 치유 테마로 자연스러운 포교를 도모할 것이다. 종교, 인종, 문화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명상과 기도를 위한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재 객원기자

하와이 산불, 100년 된 사찰도 전소

사탕수수밭 日 이민자 위한 법당
복구 보시금 모연…"재중흥할 것"


산불로 도량 전체를 잃어버린 라하이나 죠도인의 모습.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글로브

지난 8일, 하와이 주 마우이섬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산불로 100년이 넘은 일본계 불교사찰도 전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8월 18일 '아사히신문 글로브'는 하와이 불자들과 함께해온 라하이나 죠도인의 슬픈 소식을 주지인 하라 겐쇼 스님의 인터뷰로 특별보도했다.

마우이 섬의 중심부이자, 옛 하와이 왕국의 수도인 라하이나. 이곳에 소재한 '라하이나 죠도인(Lahaina 淨土院)'은 1912년,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는 일본인 이민자들을 위해 개인 집을 빌려 포교당으로 시작된 사찰이다. 현재 마우이 섬에는 라하이나 죠도인을 포함해 3곳의 정토종 사찰이 있으나, 이곳만이 일본식 전통건축으로 전각을 건립했다. 오래된 역사와 함께 관광명소로도 유명한 죠도인은 특히 매년 여름에 열리는 오봉축제를 일본계 이민자들과 현지 불자들이 함께 진행하며 불교문화를 알리며 신행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주지인 하라 겐쇼 스님은 "하와이에선 산불이 흔한 일이다. 불이 라하이나에 오기 전 날까지도 '또 산불인가' 하고 가볍게 생각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나 8일 저녁 바람이 거세지면서 경찰과 신도들이 피난을 권고해 대중들과 함께 대피했다. 스님은 "절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로 피난했으나 불이 계속해서 번지면서 두 번 더 대피소를 옮겨야 했다"며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스님은 "본당과 3층탑, 종루까지 모두 불타 버렸다. 다행히 일본계 이민 100주년을 기념해 봉안한 아미타대불만은 소실을 면했다"며 피해상황을 설명했다. 겐쇼 스님은 "불상은 일본계 이민자들이 100년이 넘게 힘든 마음을 들어주던 역사가 새겨진 불상이다. 마지막까지 절을 지키던 스님이 절이 불에 휩싸이는 순간 불을 뚫고 들어가 목숨을 잃지 않고 불상도 구출해 왔다"며 말을 아꼈다. 현재 라하이나 죠도인 측은 전용 펀딩사이트를 개설하여 복구를 위한 보시금을 모으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현재 마우이 섬의 산불로 사망자는 114명, 실종자는 최고 13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대만 자제공덕회 구호대 조직

100만 달러 기부금 모연 발표



'헬프 힐 마우이' 모금 포스터. 사진출처=자제공덕회

대만에 본원을 둔 세계적인 자선단체이자 인도주의 단체인 '자제공덕회'가 최근 산불 참사로 고통받는 하와이에 구호 활동 및 기부금 모연을 시작했다.

114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미국 하와이 주 마우이섬 산불 참사에 자제공덕회가 미국에 있는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동원해 구호에 나섰다. 또한 이재민 지원을 위한 기금 '헬프 힐 마우이' 모금 계획을 발표했다. 기금은 이재민을 위한 음식, 옷, 가스, 처방약, 기저귀, 임시 숙소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자제공덕회 미국 지회 관계자는 "하와이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대참사에 자제공덕회의 자원봉사자들이 신속하게 동원되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미국 적십자, 구세군 및 지역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재민에게 긴급 현금 카드 배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헬프 힐 마우이' 모금은 9월 30일까지이며 목표액은 100만 달러(한화 약 13억)다.

지난 8월 13일 자제공덕회 자원봉사자들은 지역 사회에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호놀룰루 차이나타운에서 거리 모금 행사를 진행했으며 긴급 현금 카드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배포가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한때 하와이 왕국의 수도였던 라하이나 섬의 인기 관광 명소인 역사적인 옛 마을도 대부분 소실됐다.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했지만 150년 수령을 자랑하는 반얀트리(뱅골보리수)가 건재한 것으로 확인돼 낙담하는 주민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오랫동안 국제포교와 어린이포교에 앞장서온
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 자우스님의 통통 튀는 전법일기!

너의 손을 놓지 않을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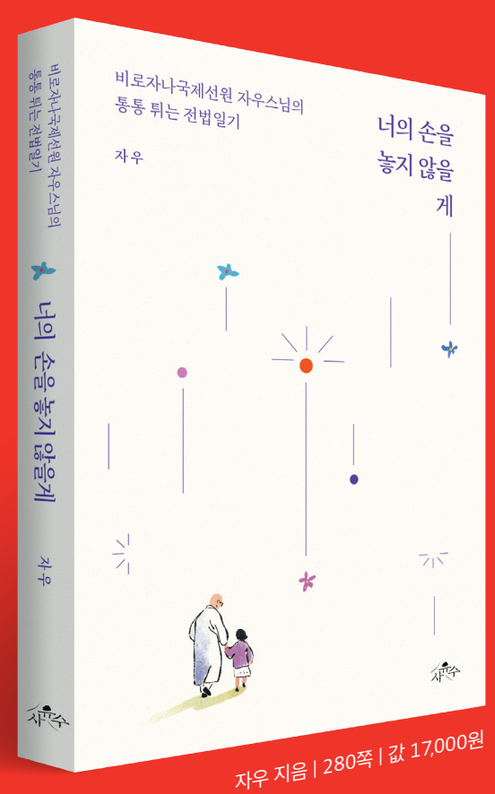
길에서 만나는 모든 부처님, 당신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비로자나국제선원을 개원하고 어린이영어캠프, 영어 참선법회 등을 운영하며 국제포교와 어린이포교에 앞장서온 자우스님이 그간 겪은 좌충우돌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이외에도 백흥암 행자시절과 유학에 이르는 씩씩한 출가수행 이야기와 인연 닿는 곳마다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온 일화들이 스님 특유의 솔직함과 경쾌함으로 그려져 독자들을 미소 짓게 만든다.



이 책이 전법의 길에 들어선 스님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고,
불자님들에게는 자비심을 증장하는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_ 자우스님 에필로그

자우스님의 자비의 미소가 사람들의 마음에 물결쳐
세상에 환한 빛을 전하기 바랍니다.
_ 정목스님 인터넷 유나방송 대표

비로자나국제선원의 아름다운 보현행이 지구촌 어린이와
청소년의 가슴에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납니다.
_ 미산스님 상도선원 선원장



저자 자우스님 | 1992년 은해사 백흥암에서 출가했다. 동학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제방 선원 정진 후 스리랑카 캘라니아 대학에서 불교학 석사를 마쳤다. 인도네시아 해인사포교원 주지를 거쳐 서울 홍제동에 비로자나국제선원을 개원, 현재까지 국제포교와 어린이포교, 문화포교 등 다양한 포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우 지음 | 280쪽 | 값 17,000원

사유수출판사 전화 (02) 336-8910 사유수